

현대차 “깨끗한 세상 위해 함께 달려요”

친환경 사회공헌 ‘엔택트 펀 레이스’ 달리기·자전거 참여시 환경보호 기부



현대차가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 공헌 캠페인 2020 통기스트 런 파이널 이벤트 엔택트 펀 레이스를 서울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 공헌 캠페인 2020 통기스트 런 파이널 이벤트 ‘엔택트 펀 레이스’를 서울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통기스트 런’은 참가자가 달리기나 자전거를 타면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부하는 현대차의 사회 공헌 캠페인이다. 유료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자동차 시트 폐자재를 재활용한 어린이용 달리기 트랙 조성에 기부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통기스트 런 행사인 ‘엔택트 펀 레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진행한 비대면 레이스에는 총 93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에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면 통기스트 런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스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통과하면서 증강현실(AR) 미션을 1시간 내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레이스는 총 8일간 운영되며 1차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수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다. 참가신청은 19일부터 통기스트 런 전용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진영에 갇힌 라임·옵티머스



기자 수첩

송태화 (파이낸스&마켓부)

엇을 위한 평가인지 그 방향성마저 불분명해졌다.

갈 곳 잃은 국정감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정말 구조적 문제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가, 한껏 끊다 식어가는 여론을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업기 위한 정치인의 수단인가.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의 보좌관은 최근 SNS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숲을 통해 “공천심사에 국감실적으로 반영되는 상은 원내대표상이 유일해 의원실마다(받기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내대표상 수상자는 공신력 있다고 평가되는 매체에 실린 기사 수와 이로 인한 보도성과에 의해 선정된다고 한다.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고스란히 실적으로 수차례되고 있다는 얘기가.

최악의 국정감사다. 정부를 감시한다는 본래 기능은 퇴색된 채 의혹을 확대하고 추궁하는 정쟁의 장이 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개이트’로 규정해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금융감독체계를 지적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그렇던 공방전은 공수가 잠시 뒤바뀐 모양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부터다.

보수·진보의 낡은 진영논리는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거대 사모펀드 사태까지 편을 갈랐다. 펀드 조성하고 운용 과정, 감독 당국의 감시 책임까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향한 왜곡된 음모론만 쏟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실제 실정을 추궁하기보다는 의혹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고질적인 진영논리에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누구를, 그리고 무

판매사가 문제의 사모펀드를 팔게 된 핵심 이유로 지적받은 것 중 하나가 승진과 인센티브 산정 등에 활용되는 핵심성과 지표(KPI)였다.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이 직원을 경쟁으로 내몰았던 방법이 본인들 스스로가 당하고 있으니 실소가 나올 뿐이다. 금융범죄에 희생됐던 펀드 피해자는 이번엔 오염된 진영논리를 바뀐 목적 아래 또 한 번 이용되고 있다. /atvin@

KCC, ‘지속가능성 지수’ 건축자재 부문 1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 6년 연속 수상

KCC가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쓴 공로로 우수기업에 뽑혔다. KCC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건축자재 분야 1위 기업에 뽑힌 동시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상(KRCA)’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KCC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우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로 6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지속가능보고서상은 KCC가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힘쓴 값진 결과다.

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해관계자 기반 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업종별 애널리스트, 환경 심사원 등 414명의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협력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왼쪽부터)심재국 KCC 총무인사총괄 상무와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사, 주주, 임직원 등 2만565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음 9월 4일) http://www.saju4000.com. Includes zodiac signs and horoscope text.

김상회의四季 하나라도 잘해야



현대는 멀티태스킹의 시대다. 동시에 이 일 저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냐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하면서 전화통화도 하고 손으로는 업무 작업을 하고 눈과 귀는 물론 손까지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점을 그리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단순한 동작이나 일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뭔가 주의를 요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말하고 싶다. 곁을 때는 제발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먹을 때는 먹을 때 집중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필자의 학창시절은 돌이켜봐도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런 학생일수록 그리 공부성적이 기대 이하였던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신경이 분산되게 되면 이도 저도 성과를 내기 힘들다. 마치 양 손에 떡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도 강조한 적이 있지만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은 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취미로 또 다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다른 한 분야는 아마 추어일 뿐이다. 인생을 살아나가기에 힘이 되는 것은 자신의 기본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주팔자구조에서 치우친 오행으로 명조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일 기질이 농후하다. 특히 예술가의 기질이 강한 경우는 화(火) 오행이 많다던가 하는 식이다. 물론 단편적으로 판별은 금물이지만 년월일시에서 특히 월(月)에서 어느 오행이 투간되어 격국(格局)을 이끌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살핀다면 그 사람의 전문분야를 판별할 수가 있다. 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재능을 계발하는 데도 많은 팁이 된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스도쿠365 and BTS Koop Kings promotional content. Includes QR codes, product images, and a grid.

metro 메트로미디어 contact information and address: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